

IR&A센터, 개방성으로 혁신 이어가길

기획조정처 산하에 IR&A센터가 신설됐다. IR&A센터는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성과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이다. 즉, 우리학교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IR&A센터는 대학 내외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성과 중심 행정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각종 대학평가 지표 또한 정성적 설명보다는 정량적 수치 중심의 자료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직관이나 경험을 참고하는 결정보다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실제로, 대학 운영에서도 정보 수집과 분

석,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 수립은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타 대학 사례를 봐도 그렇다.

한양대는 개방형 IR 생태계를 통해 타 대학과의 협업을 모색하고 있으며 숙명여대는 교육 관련 데이터를 실질적인 교수-학습 혁신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학교 역시 특정 부서의 의사결정 보조 도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연구자와 교수, 학생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 행정이 단순한 수치 나열에 그친다면 이는 대학 운영에 실질적인 변화나 혁신을 이끌기 어렵다. 수집한 데이터가 일부 행정조직이나 소수의 보직자만을 위한 분석 도구로 활용된다면, IR&A센터는 그저 또 하나의 폐쇄적 기구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학문 발전은

물론, 교육 개선과 학생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해당 데이터는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실제로 경북대 IR센터는 홈페이지에 교육과 관련해 수집한 데이터 보고서를 업로드해 구성원과 공유하고 있다.

결국 핵심은 데이터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데이터 공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학내 구성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 분석 결과가 정책 제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학교에 데이터 기반 행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적, 인적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내부 시스템 점검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병행해야 한다.

IR&A센터 출범은 데이터 기반 대학 운영의 첫발이라는 점에서 분명 반가운 변화다. 그러나 그 변화가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수치가 아닌 전략, 형식이 아닌 실질로 이어지는 데이터 행정의 정착이야말로 우리학교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IR&A센터가 단지 일부 행정 처리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공동의 자산으로 가능하길 바란다.

러브버그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며칠 전 인터넷에 올라온 인천 계양산 사진은 공포 그 자체였다. 산을 뒤덮어 까맣게 물결치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때문이다.

지난 몇 주간 한국은 러브버그로 난리였다. 사람을 물지도 않고 병을 옮기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둘씩 짝지어 비행하는 꼴을 보면 불쾌하기 짝이 없다. 실제로 지난해만 러브버그 방제 민원은 약 9천 건이었다.

러브버그는 따뜻하고 습한 기후를 좋아한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보기 어려웠던 러브버그는 대벌레, 갈파구에 이어 곤충 대발생의 주인공이 됐다.

학자들은 원인이 생태계 변화와 기온 상승이라고 설명한다. 인공 숲을 조성하고, 도시 열섬 현상으로 출현한 특정 종이 천적 없이 과번식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즉, 러브버그는 기후 위기라는 큰 틀 안에서 이해할 문제다.

그런데 러브버그가 한창이라는 소식에 한 기초단체장은 시민에게 “좀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어련히 참고 살아온 시민 입장에서선 공직자들의 책임 회피 발언으로밖에 이해하기 어렵다. 시민 불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 공직자였다면, 이 현상은 기후의 관점에서 이해했을 테다. 따라서 ‘참는다’는 회피보다 정책적 대응 방안을 먼저 내놓았어야 했다.

러브버그는 참아서 해결할 사안은 아니다. 거대한 위기의 작은 신호다. 작은 곤충의 일탈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 단순 방제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러브버그도 생태 환경이 변했기에 서식지를 옮긴 것뿐이다. 참새가 러브버그를 먹어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문제 해결을 자연에게 온전히 맡겨도 되는지 의문스럽다.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과제를 풀려면 꾸준한 연구와,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결혼비행을 마친 러브버그는 곧 자취를 감추겠지만, 앞으로 더 낮설고 거대한 불청객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때도 좀 참고 넘길 수만은 없을 것이다.

러브버그가 지구를 대신해 우리에게 묻고 있다. 기후 위기 신호를 못 본 체 넘기고 방역에만 급급할 건지, 아니면 현상의 본질을 짚고 생태계 복원을 위해 힘을 것인지. 미래세대와 지구를 ‘사랑’하는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학생회관 식당을 바라보는 시선

지적보단 지원을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생협이 국제캠에 들어선 지 한 학기가 흘렀다. 국제캠 학식이 정상화됐다는 데엔 구성원 이견이 없을 듯하다. 매출 상승에 운영이 확장된다고 한다. 정문 건너 식당에선 “생협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는 한탄도 들려온다. 학생에게 분명 좋은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밥이 맛있어졌다’고 의미를 두면 곤란하다. 생협의 효용성을 학식에 서만 찾게 된 국제캠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번 학기 학관 식당을 바라보는 구성원의 시선은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보인다. 식당 운영 주체, 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학식 운영위원회(운영위) 회의는 여전히 식당 운영 지적과 감시에 초점을 맞췄다. 운영위는 작년 위생 문제가 심각했던 학식 업체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만들어졌다고 봐도

무방한데, 같은 방식을 생협에 적용하고 있다. 또 지난 4월 발생한 식중독 의심 사례에선 조사 결과 발표도 전에 소송을 주장한 학생도 있었다. 일부 학생은 생협을 단지 ‘업체’로 인식하는 실정이다.

학관 식당을 대하는 인식이 ‘업체 대 소비자’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곤란하다. 생협은 구성원 복지를 위해 학생·교수·직원이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학식 운영은 복지를 실현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다. 수익만이 목적인 업체와는 다르므로, 생협의 식당 운영을 무작정 지적하는 건 ‘누워서 침 뱉기’일 수도 있다.

사실 학식은 운영이 잘 돼도 걱정이다. 생협은 양질의 식사를 위해 학식 가격의 50%를 식자재비로 사용한다. 여기에 소모품비, 인건비 등을 더하면 적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서울캠에선 식당뿐 아니라 서점·편의점도 운영하는 이유다. 국제캠에선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물론 식당 운영에 적절한 지적은 필요하다. 하지만 생협의 설립 취지를 따져본다면, 지원과 협력이 먼저이지 않을까.



만평 양 캠퍼스 복지 챙기는 생협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하시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아이피디